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37)

## 문자괴지(聞者愧之)

듣는 사람이 부끄러웠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항상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원론이고 그래서 누구도 하고 할 수 있는 옳은 말이지만 각론에서는 패거리나 혹은 자기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다른 정책을 내놓고 실행한다.

이때에도 여전히 백성을 위한다는 원론적인 말을 빼놓지 않지만 그러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장이나 조치들이 자기 편 행기기에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주장에 속아 넘어가는 것쯤으로 아는지 스스로의 표리부동함에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사실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패거리가 나뉘어 권력쟁탈전을 벌이는 일은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한대(漢代)에는 환관세력과 태학생 세력의 다툼의 결과, 환관세력이 태학생에게 관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조치한 것이 금고(禁錮) 조치를 한 사건이다. 또 당대(唐代)의 우이(牛李)당쟁도 우승유와 이덕유 간의 권리다툼이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 한번 권력을 잡게 되면 상대가 반격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씨를 말리고 싶어 한다.

그리면서 상대방을 절대로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를 다 대지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런 주장과 논리에 수긍할까? 송대에 신구법당(新舊法黨)의 당쟁 속에서 신법당이 구법당을 원우간당(元祐黨)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름 비석(碑石)에 새겨 두고두고 그 자손들까지 관직에 오를 수 없게 하려 하였다. 이를 추진한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정의(正義)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새긴 백성이 석공(石工)에게도 그들의 주장에 동의했을까?

송대(宋代)의 당쟁은 점진적 개선을 주장했던 구법당(舊法黨)의 사마광(司馬光)과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던 왕안석(王安石)의 신법당의 다툼에서 시작된다. 신종(神宗)은 요(遼)·하(夏)와의 전쟁과 대치하는 정황 속에서 부족한 재정을 해결해야 했다. 이때에 왕안석은 신

법(新法)이라는 제도개혁정책을 들고 나와 신종의 마음을 사로잡아 권력을 장악하였다. 신법당이다.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재정이란 경제적 규모를 크게 하여야 저절로 해결되는데 생산방법의 획기적 개혁 없이 새로운 제도, 즉 새로운 법만을 가지고 세금의 징수나 관리의 방법을 통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신종이 살아 있는 동안 그 근간을 바꾸지 아니하였는데, 신종이 죽고 어린 철종이 등극하자 황태후가 수렴정정하면서 신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사마광을 재상으로 채용하여 신법을 폐지하고 구법으로의 회귀정책을 추진하였다. 사마광은 1년도 재상을 못하고 죽었지만 황태후가 죽을 때까지 수렴정정이 계속되는 근 10년 동안은 구법으로의 회귀 정책은 지속되었다.

황태후가 죽자 친정(親政)에 나선 철종은 철종은 자기가 황제인데도 할머니에게 권력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어린에 같은 마음을 잘 아는 신법당의 무리들이 그동안 구법당들이 권력을 잡고 아버지 신종(神宗)의 정책을 잊지 않았다는 불효(不孝)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법당의 정치를 비판하고 몰아냈다. 경제 문제, 민생문제가 아니라 인물에 해당하는 효(孝)라는 개념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종시절의 정책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본 것이 아니고 신종의 정책을 비판했으니 불묘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를 주관한 재상 채경(蔡京)이 상주하였다. '3백 9명을 얻어서 황제께서 써서 이를 돌에 새기어 문덕전(文德殿)의 문(門)에서 동쪽에 있는 벽(壁)에 설치하여 영원토록 만세(萬世)의 자손들에게 경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폐하는 효제(孝悌)하시어 계술(繼述)하시는 뜻을 이어서 원우연간 간당(簽黨)의 명성(名姓)을 쓰고 이어서 원래 올렸던 문서에 이어서 올립니다.'

이제 정적(政敵)들을 원우간당

한 사람들의 편지를 전수 조사하여 신법을 비판한 사람들을 사악(邪惡)한 부류와 올바른 부류로 분류

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을 정사(正邪)로 구분하여 사악하다고 분류된 사람들은 가치 없이 내쫓고 귀양 보내는 일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그러니까 사동(邪等)에 분류된 사람은 한 명도 조정에 남아있지 못하였다.

휘종도 이렇게 소술(紹述)한다 는 국시(國是)로 너무 오랜 동안 조정을 밭카 뒤집어 놓는 일을 끝내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서를 내렸다. "원우(元祐)·원부(元符)·연간의 당인(黨人)과 상서(上書)한 것이 사동(邪等)이었던 사람을 확정하여서 하나의 명적(名籍)을 만들고 통틀어 이 3백 9명은 돌에 새겨 조당(朝堂)에 두고 이들은 관리가 될 수 있는 명적(名籍)에 서 제거(除去)하라."

이른바 이 원우당적비(元祐黨籍碑)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으로 문신(文臣)으로는 재신(宰臣)·집정관(執政官)을 맡았던 사마광(司馬光) 등 27명, 대제(待制) 이상의 관직을 가졌던 소식(蘇軾) 등 49명, 나머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는 진관(秦觀) 등 1백 76명이었다. 무신(武臣)으로는 장순(張舜) 등 25명이며, 내신(內臣)으로는 양유간(梁惟簡) 등 29명이었다. 신하가 되어 불충(不忠)한 사람으로 일찍이 재신(宰臣)을 맡았던 사람은 왕규(王珪)·장돈(章惇)이었다. 구법당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주 씨를 말릴 셈이었다.

이를 듣는 사람이 부끄러워 하였다

고기록하였다.

요즈음 몇 년간 내 편 네 편 나누

어 같아지기 하면서 어떤 백성들을 위한다는 말을 앞세워서 상대편을 공격하고 비판한다.

당이 다를 경우에도 그렇거나 같은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상대방을 헤아리는 금도(襟度)를 찾아 볼 수 없다.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

다. 정말 배운 것이 좀 적어도 좋으

니 명예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정치판에 나왔

으면 좋겠다.

였다. 이제 명단도 만들어졌으니 이를 돌에 새길 석공을 구해야 했다. 이때 장안(長安)에 사는 석공(石工) 가운데 안민(安民)이라는 사람에게 이 글자를 새기는 일을 맡기었다. 그런데 안민은 이 일을 사양하며 말하였다.

"저 안민은 어리석은 사람인지라 정말로 비석을 세우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마상공(司馬相公, 사마광) 같은 사람은 해내(海內)에서 모두 그가 정직하다고 칭송하는데 지금 그를 간사하다고 말하니 저 안민은 차마 새기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담당관원은 하찮은 석공이 감히 정부의 명령을 거절한다고 화를 내면서 별을 주려고 하였다. 석공은 그저 돌에 글자를 쪼아 새기면서 근근이 면고 사는 사람인데, 감히 조정의 명령을 거절하다니 그럴 만도 하였다. 이렇게 되자 힘 없는 석공 안민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이 공사를 받았으니 감히 사양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빌 건대 안민이라는 제 이름 두 글자를 돌의 새기어서 후세(後世)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비석에 글자를 새긴 사람이 안민이라는 이름만은 빼 달라는 것이었다.

안민이 생각하기로 자기는 무지 랭이 같은 백성이지만 그의 눈에는 원우간당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정말로 백성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인 사마광까지 들어가 있으니 그 정부의 조치는 권리와 이권을 위하여 옥석(玉石)의 구분 없이 상대편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은 하겠지만 이름만은 빼달라고 한 것이다. 석공이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 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어디 안민만 알았겠는가? 똑똑한 관원들은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다만 용기가 없어서 입 달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그런데 안민이 이 말을 하니 스스로 돌아보고 부끄럽기가 그지없었다. 그래서 속자치통감에서는 '이

를 듣는 사람이 부끄러워 하였다'

고기록하였다.

요즈음 몇 년간 내 편 네 편 나누어 같아지기 하면서 어떤 백성들을 위한다는 말을 앞세워서 상대편을 공격하고 비판한다.

당이 다를 경우에도 그렇거나 같은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상대방을 헤아리는 금도(襟度)를 찾아 볼 수 없다.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

다. 정말 배운 것이 좀 적어도 좋으

니 명예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정치판에 나왔

으면 좋겠다.

## 고립·고독 극복정책 안보인다

권대봉 인천재능대 총장·고려대 명예교수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지난 달에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선진국에 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고립과 고독문제이다.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은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 1950)'에서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전통 지향형, 내부 지향형, 외부 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 현대인은 외부 지향형으로 타인 지향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도리어 고독한 군중이 되고 만다고 주장했는데, 디지털시대에도 유효하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려동물 지향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정성을 들어야 한다. 철따라 예방접종을 하고 병이 나면 수술까지 시켜야 한다. 사람 수술비보다 반려동물 수술비가 많은 경우도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정성스레 장례까지 치러주는 문화가 생겼다. 사람들은 돈과 정성을 쏟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그들과 생활하며 기쁨을 얻고 고립과 고독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고립과 고독을 극복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정부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최초로 영국정부는 2018년 1월에 인간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은 매일 담배 15개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들로하여금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고독담당장관(Minister of Loneliness)을 임명했다. 당시 영국정부는 20만여명의 노인들이 친지나 친척과 대화를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1개월 이상이나 경과했고, 국민들 중 9백만명 이상이 "항상 혹은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도 국민의 고립과 고독을 극복할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한국인 개개인의 외부 지향적인 특성뿐 아니라 1인 가구 증가와 행정과 산업 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사람들끼리 말하면서 소통하는 시간보다는 기계와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져 외로움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기업이나 정부에 고립과 고독을 극복할 정책이 안보인다. 내년 3월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국민의 고립과 고독을 극복할 비전과 미션을 보여주는 대통령 예비후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 안동종친회 코로나19로 정기총회를 서면보고로 대체

년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기예금 등 총 1억3천6백여만원, 지출 3천6백여만원 잔액 1억 여원이 남아있다. 또 2021년도 신년인사회 결산내역은 특별잔금, 광고료 수입, 이자수입 등 총 수입 2천8백여만원, 지출 9백700여만원, 잔액 1천8백여만원, 아울러 물품 찬조도 있다.

권숙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기총회를 갖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며 우리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며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종친회원들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단합해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고문, 원로회원, 회장단, 부회장단,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종무협의회, 청·장년회 임원, 부녀회, 광고 협찬자 등 300여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내용을 보면 2020년도 결산보고, 2021년도 신년인사회 결산보고, 특별잔금 내역, 광고협찬 내역 등이다. 2020

보도부장 권영건

## 〈2021年 8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7. 29. ~ 8. 30.

총 납부자 12명

총 37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기홍(영주)	30,000	권오창(영주)	30,000
권만봉(광주)	40,000	권이현(대구)	30,000
권영구(제천)	30,000	권중봉(거제)	30,000
권영수(구미)	30,000	권중욱(서울서대문)	30,000
		권희현(함양)	30,000
		권해조(서울서초)	30,000
		권호(완주)	30,000
		권희(대구)	30,000

## 안동권씨 종보 구독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47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권문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100만 족친 여러분의 소통매체이자 대변지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으로서 모든 족친에게 열려 있습니다. 본지는 100만 족친과 함께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회에서는 종보 활성화 방안으로 족친님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독자 1명 추천에 <10,000원>의 사례금을 즉시 지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구독신청 연락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입금 계좌 : 033237-04-006941(국민), 예금주 :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2020년 정기총회 이후 미납된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